

1. 17

四三九四二五

공공

시각

부부
시각

내부
시각

공공
시각

과장
시각



신영호 특별시장

檀紀四二九四年一月十七日

신영호 특별시장

신영호 특별시장

時高淨化中央協議會日

市支部動向報告日

首題件 同協議會日

十三日午後五時十五分頃

檢文之 撤布



國會詩別警備家

0004

456

檄文!!

우리나라首都서울을 어떻게 하면 다름나라首都에 比하여 選色이 없이 市政과 施設을 훌륭이 하코
二百萬市民이 安心하고 裕福하게 生을 享樂할 수 있을까? 市政의 善否가 直接우리家庭에 까지 影
響되는 것이 事實인즉 이를 傍觀이나 對岸火視할 수 없는 것이다 故로 本市支部에서는 市當局과 市
民諸位에게 다음과 같은 檄文을 가지고 警鐘과 아울러 呼訴하는 바입니다

一、市長은 人事行政을 革命的으로 果敢히 實踐하라!!

1. 市政은 計劃의 樹立도 重하지만 實踐하는 人的(公務員)構成을 새로이 하라
人間은 社會各級組織의 核心이요 그 運營의 中心이다 人間이 不義하고 腐敗하였다면 人間社
會全域이 病든 것은 自明한 일이다 故로 人間全域에 健全을 圖謀한다면 病的인 人間自體의
大革命을 斷行하여야 한다

3. 市長은 隸下職員中不正選舉加担者와 不正蓄財을 하여 「도둑놈」이라는 市民의 指摘을 받은
汚吏를 官에서 逐出하는 것을 市民은 要望한다

4. 市民을 爲한 善良한 市政을 執行하지 못하는 汚吏들에게 市民의 膏血로 바쳐진 税金으로
報酬을 應分할 수 없다

5. 市長은 斷行刷新하라
處理를 斷行刷新하라

6. 李承晚獨裁의 果敢이 아닌 淸直한 在野人士를 大幅起用하라

二、市長은 失業者對策에 萬全을 期하라!!

1. 土佃卒의 貧民 다디 및 板子집 同族들의 生活苦를 보라 그들의 救濟方法은 "쌀" 과 "돈"
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터를 달라는 것이다
失業者對策은 土木, 水利, 砂防, 開墾, 中小工業, 水産等を 擴張營爲하여 자들에게 職場
을 賦與하라

3. 時局을 不平하고 浮浪하는 群衆(失業者)을 一掃하는 劃期的인 對策을 講究하라

三、市長은 市民의 所願을 들으시라!!

1. 稅務行政을 改革하여 公正한 稅制의 庶民層의 負擔을 輕減하라
納稅는 國民의 義務에 하나이다 正當한 稅法으로 課稅의 公平을 期하라 (認定課稅는 稅
吏들의 貧汚의 마음을 助成시키는 事例가 된다)

3. 産業과 金融政策에 있어 庶民層의 惠澤을 期해야 한다
市政에 있어 不正, 不法 邪惡等 其他非行으로 市民의 口實에서 오르내리지 않는 良心的인
公務員이 되어 지기를 바란다

5. 「카이제루」市長뒤에는 善良한 二〇〇萬市民이 聲援을 보내니 果敢한 勇斷으로 市政에 臨하라

四、市民에게 告한

1. 民選市長으로서 革命課業을 完遂하려는 方針과 施策을 粗害하는 不純勢力을 濁汰하라
社會의 公器요 木卓인 言論機關은 不偏不黨으로 眞否 正當性을 正當하게 批判하고 國民
에게 正確인 嚮導로서 民心을 騷亂시키지는 等 事例는 各己責任感을 忘却한 所致이라 아니
할 수 없으니 市民諸位는 公私間生活領域에 있어 道義心을 發揚하여 無批判的 曲解 없기 마라

3. 新生活體制는 社會의 腐敗와 善修風潮를 一掃하고 正直, 努力, 勤勉, 貯蓄에 健全하고 明
朗한 社會勞働氣를 造成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現實은 超非常時이다 生活様相은 正反對인 矛盾에서 虛榮亂興의 "도가니"
수레는 統一爲한 戰士답고 再建爲한 役軍다운 體制의 國民生活를 特히 政治人과 指導層의
一大生活革命을 要한다

6. 民選市議員諸位는 所屬政黨의 如何를 莫論하고 어디까지나 是非々々로 吾心即汝心하여
公平無私하게 市政에 寄與한 覺悟를 가져야 한다

市議會는 舊態依然의 相反論爭으로 才談場化한은 身亡敗家의 所致이요 二〇〇萬市民
을 愚弄한 나머지 不安을 자아내는 "것"은 禁物임을 格別히 銘心하고 爲官爲民하
는 善政을 베풀라

時局淨化中央協議會
서울特別市支部